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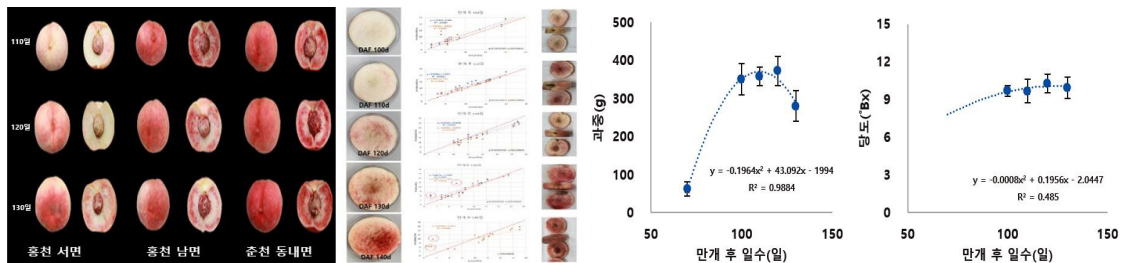
신품종 '대홍' 복숭아 수확시기 판단 기준

배경 및 필요성

- 소비트렌드형 '대홍' 복숭아 재배면적 지속 증가: ('15) 15 → ('22) 44ha
- '대홍' 복숭아는 과육이 단단한 경육종으로서 연육종에 비하여 수확 가능 시기가 1개월 가량 길어 수확시기에 따른 품질 편차가 큰 편임
- 수확시기에 따라 당도, 안토시아닌 함량 및 저장성 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규격과 생산을 위한 수확시기 판단 기준 설정 필요

정보 내용

- '대홍' 복숭아 적정 수확시기 판정기술: 비파괴당도계, 적산온도 활용
 - 만개 후 110일부터 130일까지 휴대용 비파괴당도계 등을 활용하여 수관 상부부터 기준 당도(우기 10°Bx, 건기 12°Bx)에 도달 시 순차적으로 수확
 - * 만개 후 130일 초과 시 과숙되어 생리장해인 적육증에 따른 상품과율과 가공적성 저하, 비파괴당도계 예측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유의할 것
 - 적산온도(7°C 이상) 1,800°C 기준에서 과중, 당도가 상품과 범위에 도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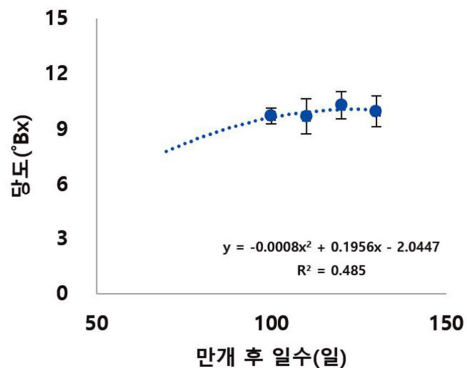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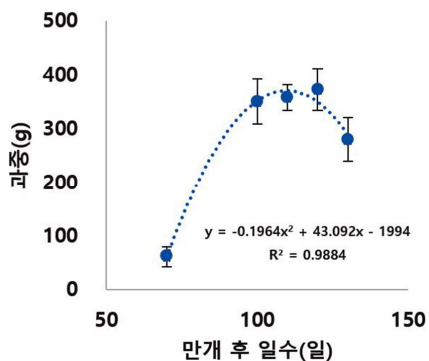
【만개 후 일수 별 과실품질 특성 변화】

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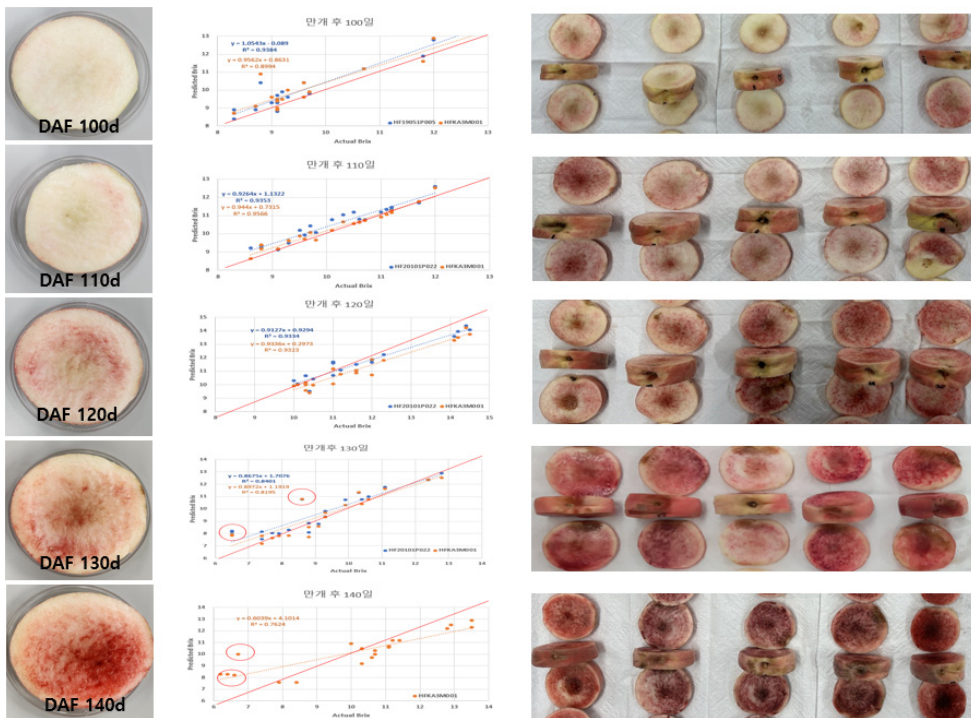
- '대홍' 복숭아 고품질 규격과 안정생산을 위한 적정 수확시기 설정 및 품질관리 기술 확립으로 규격과 품질관리 및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
- 지역특화 '대홍' 복숭아 재배 매뉴얼 보급으로 특산단지 보급 확산

세부 연구결과

- 만개 후 일수별 과중 및 당도 변화



- 휴대용 비파괴당도계 활용 수확시기별 당도 예측성능 비교



※ 만개 후 110일부터 130일(DAF 120d~130d)까지 비파괴당도계 활용 가능

원예연구과

담당자: 정했님, 강호민, 이제창, 김주현, 노유한, 최인이, 장은하, 원재희
(033)248-6072, jhn5362@korea.kr